

# 일본 양계양돈종합전 및 계란시장

– 130여개 업체 참가, 2만여명 참관객 방문 –



▲ 2009년 7월 8~10일까지 개최된 나고야 박람회



▲ 나고야 박람회 개최 포스터



▲ 한국양계농협 경제사업부 김동기  
부장(나고야 박람회장 입구에서)

**신종플루의 등장으로 세계적으로는 1천명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온 세상이 시끄러운 시점에서 개최되는 나고야 박람회는 출발 전부터 많은 우여곡절 속에 국내의 참석예정자들도 참석을 취소하는 등 참석여부를 놓고 갈등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일본양계산업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생각과 동시에 마늘과 김치를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한 질병도 이겨내리라는 믿음 속에 강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입국부터 마스크 착용과 검사대를 지날 때에는 긴장감에 여러 가지 우려와 대회장에 도착해서도 많지 않은 방문차량은 신종 플루의 영향을 실감하게 되었다.**

## 1. 8년만에 성황리에 개최

일본 나고야 양계양돈전시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축산전문전시회로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130여 출전업체의 전문성과 수준 높은 전시품목이 공개되는 아시아 양계, 양돈 산업분야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은 전문전시회이나, 참관 인원수는 일반 참관자와 출품업체 인원을 합산하여 약 2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그 인원수는 그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행사에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추진하는 생산 농장의 안전성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일본 농림수산성 기축위생과에서 후원하는 각종 전시회 및 부대행사도 동시개최 되었다. 나고야 박람회는 2001년 개최 이후 구제역 파동으로 잠정연기 되면서 금년을 맞아 8년만에 부활하면서 참관의미가 남다른 전시회라 할 수 있다.

## 2. 일본 양계산업 현황

금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사료, 케이지, 자동화 시설, 농장, 계란유통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방문하였으며, 양계특별강연회에서는 JA전농계란주식회사 서일본 영업본부장 스즈키 야스시씨로부터 2009년 일본채란양계의 현황과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의 계란수요량의 95~96%는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며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율이 40%임을 볼 때 계란의 자급율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계란의 1인당 소비량은 323개(2008년 기준)이며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계란 가격면을 보면 구미와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계란의 수요량 신장은 둔화되고 있고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수급완화기조에 있다.

### 1) 농업총산출액(농업총생산량)

2007년도 축산부분의 총산출액은 2조 5천억엔이고, 경종부문을 포함하는 농업총산출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양계는 축산부문의 27.3%인 6,773억엔이고 이중 계란은 4,060억엔, 육계를

포함하는 계육은 2,713억엔을 상회하고 있다. 계란은 농업총산출액의 5%를 차지하고 있다.

### 2) 소비동향

1965년 채란용 성계 수수가

국민 1인당 1마리 시대로 접어들어 계란 1인당 소비량이 217개 였으며, 그 후 연간 260~28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에는 300개를 초과하였다. 1965년 이후 330개의 소비수준을 보이다가 소비가 감소하여 2007년에는 323개를 보이고 있다.

계란의 수입량은 조란으로 환산하면 수요량의 4~5%를 상회한다. 2007년에 1일 1인당 계란소비량 55.3g이고 이중 가계소비량은 27.6g이며 나머지 27.7g은 외식, 중식 등의 업무용, 수급조절용 할란, 가공, 제과, 제빵, 마요네즈등 가공품으로 소비되었다(소비형태는 가계소비용 50%, 업무가공용 50%).

### 3) 생산동향

채란계의 사육수수는, 소규모층을 중심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08년 2월 1일 현재의 사육호수는 3,300호로 전년대비 4.6%감소하였으며, 성계사육수수는, 1999년 이후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07년은 전년대비 4.3%증가, 2009년은 전년대비 0.2%감소로 142.5백만 수이다.

농가 1호당의 사육수수는, 일관해서 증가하고 있어 2008년은 전년대비 4.6%증가의 43,200수이다. 2008년에 있어서의 성계수수규모 5만 수 이상 층의 사육 호수는 644호(전체의 21.5%), 사육수수는 112백만 수(전체의 78.4%).이며, 생산량은 지금 까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착실하게 증가해 왔지만, 근년은 대체로 큰 변동이 없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도는 전년도 대비 3.1%증가, 2008년도(4~12월)는 전년 동기비 2.0%감소하고, 병아리 수수는 2007년도는 전년도 대비 2.2% 감소, 2008년도(4~1월)는 전년 동기비 3.1% 증가하였다.



▲ 대형유통마켓인 저스코 백화점



#### 4) 가격동향

계란도매가격은 계란 95%를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고 수요도 거의 안정적인 추이하고 있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생산량 변동이 대폭적인 가격 변동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계란 가격은, 매년의 계절적인 수급 밸런스에 의한 변동(계절 변동)과 5~6년을 주기로 하는 변동(에그 사이클)이 존재한다. 도매가격은, 2000년 5월 이후는, 수요가 침체한 것 등으로 인해 낮게 형성되고 있었다. 2003년도는 가격이 크게 침체 한 반면 2004년부터 2005년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발생등과 생산자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생산 억제 등의 노력에 의해 2004년 가을 이후 가격이 회복되어, 2005년도에는 200엔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2006년도는 1월과 2월에는 새롭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였지만 수요가 줄지 않아 계란가격은 180엔대를 유지하였다. 2008년도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8년도는, 수요는 줄지 않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전년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3. 친환경 제품 선보여

금번 전시회에서는 양계전시부문을 보면 1) 육계, 종계 및 도계, 육가공, 계사설비 2) 급수, 급이, 기자재, 영양제, 케이지 3) 수의약품, 열풍기, 환풍기, 탱크, 사료 4) 분류, 온도처리, 판매, 유통, 농장자동, 5) 사료, 계란, 산란계, 종계용 6) 포장, 슬랫, 난상 육추기, 계사청소 등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양계분야도 친환경과 동물보호 방향으로 기계와 사람, 동물과 사람이 점점 친숙해지는 방향으

로 발전해가는 것 같다. 그 예로 교화선별기는 선별기의 모든 작동 과정마다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멜로디가 저장되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종계케이지의 경우 케이지 방방곡곡에 선풍기처럼 자체 훈이 장착되어 있어 동물건강환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계란을 포장하는 용기도 PET에서 공업용 옥수수 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시회 방문 후 일본의 대형유통마켓인 저스코, 이세탄백화점, 중형마켓, 편의점, 쿠로몬재래시장등을 방문하였는데, 일본국

민 1인당 323여개/년을 소비하는 세계적인 계란 소비 국가임에도 계란진열대는 국내마트와 다르게 포장에 치중하지 않고 단순·소박하였다. 선진국 일수록 계란의 포장은 겉치레가 없고, 서민식품으로 함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엿보인다.

끝으로 우리 양계산업도 서민들과 더욱 가까이 가도록 화려한 겉포장이 아닌 속이 알찬 양계산물을 생산해야겠다. **양계**



▲ 전시된 계란 선별기 제품



▲ 일본 계란 선별기 업체 NABEL사



▲ 고객의 취향에 맞는 계란을 뽑을 수 있는 계란자동기